

“얼큰한 돼국라면 만들어... 자갈치 불뚫장어면도 계획”

■ 정의근 테이스티키친 대표

부산명물 돼지국밥에 라면 연계
맛집 100여 곳 다니며 육수 연구
부산관광스타트업 평가 최우수



테이스티키친 정의근 대표가 '돼세미남' 티셔츠를 입고 '부산 돼국라면'에 대해 말하고 있다. 테이스티키친 제공

“이렇게 맛있는 부산 돼지국밥을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없을까? 돼지국밥에 꼭 밥을 말아서 먹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한 끝에 ‘부산 돼국라면(돼지국밥 라면)’을 출시했습니다.”

테이스티키친 정의근(40) 대표는 최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산 돼국라면을 만든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역 스타트업인 테이스티키친은 지난 4월 와이즈(크라우드펀딩 플랫폼)를 통해 돼국라면을 처음 선보였다. 개발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이다. 와이즈를 통해 투자금 1600여만 원을 모은 테이스티키친은 돼국라면 4570여 개를 전국에 판매했다. 이런 성과로 올해 ‘부산관광스타트업’의 기업 평가 최우수 그룹으로 선정돼 최근 영도구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입주했다.

정 대표는 “부산 돼지국밥 가게만 100여

(돼세미남)’라고 소개했다. 현재 돼국라면은 부산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엑스더스카이 >송정서프홀릭 >용호별빛팍 >영도신기상회 >KT&G 상상마당 부산 디자인스퀘어 >김해공항 갈매기상점 >용두산공원 대천스토어 등 총 8곳에서 판매되고 있다. 대천스토어에서는 돼국라면과 소주 결합 상품인 ‘대천이라면’을 만날 수 있다. 지난달 열린 부산항축제에서도 돼국라면을 선보였다.

정 대표는 돼국라면의 포인트로 3개의 수프(육수, 생 새우젓, 다진 양념)를 꼽았다. 먼저 돼지뿐만 아니라 소뿔로 우려내 깊은 맛을 더한 뽀얀 밀양식 돼지국밥 육수다. 부드러운 맛을 위해 들깨가루도 넣었다. 이비법은 부산의 한 돼지국밥 명인으로부터 전수받았다. 다음으로 감칠맛을 높이기 위해 인스턴트 라면 중 처음으로 생 새우젓을 액상 수프에 넣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매운맛에 열광하는 트렌드에 주목해 다진 양념 수프를 ‘불닭볶음면’보다 2, 3배 맵게 만들었다. 정 대표는 기호에 따라 다진 양념 수프 양을 조절하거나 아예 넣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돼국라면이 얼큰하고 진한 육수가 일품인 만큼 소스와 조합이 끝내준다고 덧붙였다.

돼국라면 표지를 장식한 캐릭터 이름은 ‘돼국’이다. 돼국이 가진 핑크색 선글라스에는 부산을 상징하는 동백꽃이 불꽃 모양과 함께 새겨졌다. 빨간 동백꽃의 꽃말 ‘열정’과 ‘불꽃’의 이중적 의미를 담았다. 돼국이 캐릭터와 돼세미남 타이틀을 활용해 활발한 홍보 마케팅도 펼치고 있다. 기획부터 제조 브랜딩까지 모두 정 대표의 작품이다.

“부산과 함께라면(가칭)” 시리즈도 기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갈치 불뚫장어볶음면’ ‘낙동강 재첩국라면’처럼 명란 멸치 어묵 등 부산 지역색을 담은 다른 라면도 개발해 라인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강 즉석 라면처럼 기계로 라면을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점에 진출하고,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해 외부 행사나 다른 지역까지 선점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돼국라면 구매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해 돼지국밥 폴코스 투어도 할 예정이다. 서면 관광지 해운대 등 부산 대표 관광지를 여행하면서 돼지국밥 맛집들을 방문하는 방식이다. 정 대표는 “부산을 대표하는 명물과 한국을 대표하는 K-푸드 라면을 접목한 상품을 지속해서 개발하겠다. 이를 부산 관광과도 연계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유진기자



금정농협,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한마음 대축제 어울림 한마당

부산 금정농협은 지난 12일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한마음 대축제&아울림한마당’ (사진) 행사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의 농협중앙회장과 이사조합장을 비롯한 전국의 조합장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지난 1973년 출범한 금정농협은 농업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성장해왔다. 이날도 지역 소외 계층을 위해 농협쌀 1만kg과 농협김치 500박스 등 5000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금정구에 기부했다. 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동래학원에는 장학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유진기자



KT, 경남 '아이좋아 사업' 후원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이사장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 12일 주식회사 KT 부산경남본부(이하 KT)가 경남교육감을 방문해 ‘아이좋아 통장사업’ 후원금 2000만 원을 기탁(사진)했다고 밝혔다.

‘아이좋아 통장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남미래교육재단이 고교 1학년생을 선정해 해당 학생 가정과 1대 1 연계해 3년간 매월 6만 원씩 적립·지원하는 사업이다.

KT는 다문화가정 랜선 한글교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디지털 관련 교육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한다.

경남미래교육재단 박종훈 이사장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진규기자

하축

▶ 권옥주 씨 장남 강동우(소중한눈안과 본부장·국제아카데미 19기 원우) 군, 김태현 정경씨 씨 차녀 신영 양 = 18일 오후 3시 연제구 w웨딩홀 3층 에메랄드룸. (051)668-7979

무궁화장학회·부산사랑의열매, 36명에 장학금 지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금식, 이하 부산사랑의열매)는 지난 10일 부산진구 양정 롯데갤러리움 웨딩홀에서 (재)무궁화장학회(이사장 김영길)와 함께 2023학년도(제39기) 장학생 36명에게 총 47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사진)했다.

올해 장학생은 부산에 거주하는 중·고등·대학생 중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36명이 선발됐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사랑의열매가 엄격한 심사를 했다. 장학생은 대학생 2명, 고등학생 19명, 중학생 15명이다. 대학생 200만 원, 고등학생 150만 원, 중학생 100만 원씩 전달되며, 올해 전달된 장학금은 총 4750만 원이다.

김영길 무궁화장학회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무궁화장학회와 함께한 학생들이 앞으로 학업을 마치고 사회의 일원이 된 뒤 어려운 주변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궁화장학회는 1985년 온천2동 일대 주민과 상인 등 45명이 뜻을 모아 ‘온천2동 무

궁화장학회’로 발족해 지금은 160여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다.

2019년에는 부산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나눔리더스클럽 5호로 가입해 현재까지 1억 원 상당을 기부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은 물론 나눔과 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최영지기자

한국노총 부산본부, 산업안전보건 공동캠페인

한국노총 부산본부와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 공동 캠페인’ (사진)을 실시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는 13일 오전 10시 부산신항 1부두 일원에서 이같은 캠페인을 열었다. 캠페인에는 한국노총과 시 외에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역본부, 부산산업재해예방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캠페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현장 노동자의 산업안전 의식 향상 및 산업안전 보건 역량 강화와 노조의 사회적 책무 준수 등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이혜수 의장은 “부산



지역 최대 산업 현장인 부산신항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다짐함으로써 항만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용기자

부산주택건설협, 30년째 국가유공자 주거개선 지원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회장 박재복)는 지난 12일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사를 완료(사진)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은 주택건설업체가 뜻을 모아 실시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추천받은 국가유공자의 노후 주택을 주택건설업체가 전액 무료로 개보수하는 민간차원의 보훈사업이다. 1994년 시작해 올해로 30년째 협회는 현재까지 총 94개 동의 부산지역 국가유공자 주택을 개보수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박재복 회장은 “형편이 어려워 오래된 집을 고치지 못하고 많은 불편을 겪어온 국가유공자를 위해 주택건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났고 오래된 집을 무료로 개보수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지기자

가수 하동근, 남해군 홍보대사

경남 남해군은 트로트 가수 하동근(사진)을 오는 16일 열리는 제18회 남해 마늘한우축제 개막식에서 남해군 홍보대사로 임명한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꽃밭이야’로 데뷔한 하동근은 남해의 오동미를 중심으로 고향 남해군에 남다른 애정을 표현해왔다. 하동근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보물섬인 남해군의 홍보대사로 임명돼 너무나 큰 영광이다. 남해군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되도록 앞으로 많은 활동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해군은 올해 ‘2023 남해군 관광 이미지 혁신의 해’를 맞아 남해군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할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대사 하동근과 함께 제작해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수기자

제보전화 : (051)500-5145 이메일 : opinion@kookje.co.kr



경남정보대학교(총장 김대식)는 최근 군사학과 재학생 40여 명이 해병대 병영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 동구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김진홍 동구청장) 및 관리감독자 등 19명은 지난 2일 울산안전체험관의 산업안전체험 교육에 참여했다.



의료법인 센텀의료재단(이사장 박종훈) 직원들은 최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의 프로야구 경기를 단체 관람했다.



부산 남구치매안심센터는 지난 8일 경성대학교(멀티미디어관412호)에서 물리치료학과 학부생 29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했다.



쌍용도시부산포럼은 지난 9일 동구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이각규 박람회연구회장을 초청해 ‘2030부산엑스포 키즈쇼’ 3회 강연을 진행했다.



부산시하리이온스클럽은 최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에서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기증식을 가졌다.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제2기 CEO과정은 지난 8일 ‘한효섭 박사의 노인 교육생애사’를 주제로 여자박사(한일고등학교 교장)가 특강을 했다.